

#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대항미디어 운동 연구(1)\*

— 선언을 통한 창립에서 『실천문학』의 창간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

이종호\*\*

## 〈차 례〉

1. 들어가며: 자유실천문인협회와 미디어
2. '선언'이라는 미디어를 통한 정체성 확립
3. 공연미디어와 인쇄미디어의 결합: '민족문학의 밤'과 『광장에 서서』
4. 『실천문학』의 창간과 지식인집단의 연대
5. 나오며: 대항미디어 운동으로서의 자실

## [국문초록]

자유실천문인협회(이하 자실)는 1974년 11월 18일 광화문 거리에서 선언을 통해 창립된 후 1984년 재창립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다른 지식인집단과 연대하며 그 지향을 대중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실의 미디어 활동을 선언문의 연쇄, 공연 및 인쇄 미디어의 결합, 『실천문학』의 창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검토하고 그 의의를 고찰해 보았다.

이 시기 자실은 표현의 자유와 반유신을 주장하는 선언문을 계속해서 발표함으로써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을 증원하면서 내부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자실은 교수·언론인·학생 등의 지식인집단과 접촉하여 강한 연대감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민중과의 연결고리 또한 마련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자실은 '민족문학의 밤'이라는 공연미디어와 『광장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1036680)

본 논문의 보완 지점을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고의 한정된 지면에서는 여러 생산적인 지적과 제언을 충분히 담지 못했는데, 향후 다른 기회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연구교수

에 서서』라는 인쇄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기획과 문학적 실천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민족·민중 등으로 수렴되는 문학론을 정비하면서 주요 필진들을 결집하여 향후 실천문학론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졌다. 나아가 다층적 미디어 활동으로 축적된 역량은 무크지 『실천문학』의 창간을 견인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의 미디어 활동은 문인들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유신체제로 인해 존재 기반을 상실했던 문인·대학교수·대학생·언론인 등 다양한 지식인들이 협력하고 연대하며 구축한 ‘저항전선’이자 새로운 주체성 생성을 지향한 ‘대항미디어 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지닌다.

[주제어] 자유실천문인협의회(자실), 대항미디어, 『실천문학』, 지식인연대, 선언, 민족문학의 밤, 『광장에 서서』, 유신체제

## 1. 들어가며: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미디어

1974년 11월 18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세종로 광화문 네거리 의사회관 앞에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이 발표되었다.<sup>1)</sup> 그리고 이 선언을 계기로 ‘자유실천문인협의회(自由實踐文人協議會)’(이하 ‘자실’로 약칭)가 결성된다. 때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구축(1972.10.17)된 지 만 2년이 경과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맞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고 외치며 전태일이 분신(1970.11.13)한 지 만 4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특히 1974년은 긴급조치가 발동되고, ‘문인간첩단 조작사건’과 ‘민청학련(民靑學聯)사건’ 등으로 김지하, 이호철, 임헌영 등의 문인들이 구속된 시기이기도 했다.<sup>2)</sup> 당시 광화문 거리에는 ‘유신만이 살길이다’ 따위의 선전탑이 내걸려 있었고, 자실의 창립 선언문이 낭독된 의사회관에는 5·16 이후 발족된 ‘한국문인협회’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자리하고 있었다.<sup>3)</sup>

선언 당일의 풍경은 이러했다. 문인 30여 명과 내외신 취재 기자 20여 명

1)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의회와 70년대 문학운동사(1)』, 『실천문학』 제5권, 실천문학사, 1984.10, 504쪽 참조.

2) 『검찰발표 ‘문인·지식인간첩단’ 적발』, 『동아일보』, 1974.2.5, 1면; 『민청학련사건 공소사실요지』, 『동아일보』, 1974.5.27, 4~5면 참조.

3)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문예운동사 연재4: 시련의 출발과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 『내일을 여는 작가』 8, 작가회의출판부, 1997.7·8월호, 220~221쪽 참조.

이 모인 가운데 선언문이 낭독되자 일시에 무장경찰들이 들이닥쳐 이들을 제지했다. 문인들은 “유신헌법 철폐하라” “시인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시위를 전개했지만, 곧바로 경찰들에 의해 해산당했고 그 과정에서 문인 7명이 연행되었다.<sup>4)</sup> 유신체제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sup>5)</sup>하고 지지했던 언론인들은<sup>6)</sup> 이 사건의 전말을 상세하고도 우호적으로 보도했다.<sup>7)</sup> 이와 더불어 광화문 거리 건너편에서는 그러한 일련의 광경을 리영희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sup>8)</sup> 주지하듯이 그는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 언론계에서 추방된 이후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으며<sup>9)</sup> 당해 『전환시대의 논리』(1974)를 출간하여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었다.

자신의 창립 선언은 주되게는 유신권력의 철폐를 겨냥하고, 문학사/문단 사적으로는 보수 문인단체와 그들의 문학관에 대한 비판을 함의하고 있었다. 확실히 선언의 주체는 101인의 문인들로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다만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의 호의적 반응과 대학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지식인의 관심 속에서 그 영향력은 증폭될 수 있었다. 말하자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유신체제에 비판적이었던 ‘모두’가 그 풍압과 고립에 맞서 연대를 구하며 다른 체제를 상상하고자 했다.

『자유실천문인협회의 101인 선언』을 작성한 염무웅은 통시적으로 “자유

- 
- 4)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의와 70년대 문학운동사(1)」, 위의 책, 같은 쪽; 이시영, 「1974년 11월, 『바다호수』, 문학동네, 2004, 98쪽 등 참조.
- 5) 동아일보 기자 일동, 「자유언론실천선언」, 1974.10.24.
- 6) 조선일보 기자 일동, 「자유언론 회복을 위한 선언문」, 1974.10.24; 중앙매스컴 기자 일동, 「중앙매스컴 언론자유 선언」, 1974.10.24;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수호 선언」, 1974.10.25; 「언론자유수호 제2선언문」, 1974.10.25; 서울신문사 기자 일동, 「기자선언」, 1974.10.25; 한국일보 기자 일동, 「자유언론 회복을 위한 결의문」, 1974.10.25.
- 7) 「자유 실천 선언 30여 문인, 가두데모 좌절」, 『동아일보』, 1974.11.18, 7면; 「문인 30명 시위 7명은 연행」, 『경향신문』, 1974.11.18, 7면; 「자유실천선언 문인20명 가두데모기도」, 『조선일보』, 1974.11.19, 7면; 「가두데모좌절 문인 자유실천 101인 선언」, 『한국일보』, 1974.11.19; 「연행문인석방」, 『조선일보』, 1974.11.20, 7면 등 참조.
- 8) 염무웅·백지연, 「정치적 억압과 글쓰기의 자유」, 한국작가회의의 40주년 기념사업단 편찬위원회, 『증언: 1970년대 문학운동』, 한국작가회의, 2014, 150쪽 참조.
- 9) 리영희는 이른바 ‘64인 지식인 선언’(「언론·종교·법조계·문단 등 각계 저명인사 64명 긴급선언」, 1971.10.19.)으로 합동통신사에서 강제 해직당한 뒤 한양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리영희·임현영,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길사, 2005, 418~470쪽 참조.

실천문인협의회가 평지들출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당시 “유신체제는 원치 않게도 각 분야의 지식인들을 연결시키고 또 지식인과 민중운동을 결합시키는 적극적 작용을 한 측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sup>10)</sup> 또한 그는 4·19 이전/이후 세대인 ‘전후문학인협회(50년대 말)’와 ‘청년문학인협회(1967)’의 두 흐름이 합류하여 주축이 되는 가운데 자신이 결성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문학의 새로운 주체와 경향이 출현할 수 있었음을 주장한다.<sup>11)</sup> 말하자면 ‘자실의 출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다기보다 비정상적인 국가권력 아래 오랫동안 누적되고 잠재되어 있었던 저항의 목소리가 집합적 형태로 현실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74년에 결성된 자실은 70년대 유신체제와 80년대 신군부 정권을 거치면서 그 활동 및 조직 구성에 있어서 크고 작은 변화와 부침을 겪었지만, 크게 보자면 1984년 『84 문학인 선언』 및 ‘자유실천문인협회 84회의’를 통해 ‘재창립’되기까지<sup>12)</sup> 10여 년간 지속된다. 이 시기 동안 자실은 문단이라는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영역의 주체들과 조우하면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즉 자실은, 사회적으로는 반유신 및 민주화운동에 주력하면서 냉전과 반공주의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고, 문학사/문단사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자 진보적인 경향으로 세력교체를 이루어내는 동시에 ‘실천문학론’ ‘제3세계문학론’ ‘민족·민중문학론’ 등의 입론을 세우고 그것을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출판문화사 차원에서도 무크지와 같은 새로운 형식을 발명해냄으로써 80년대 무크지 운동의 도화선을 마련했다.

10) 염무웅·백지연, 앞의 글, 앞의 책, 139·147쪽.

11) 염무웅, 『5, 60년대 남한문학의 민족문화적 위치』,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 비평사, 1995, 351~363쪽 참조.

12) 『자유실천문협 재발기』, 『중앙일보』, 1984.12.20, 11면; 『자유실천협 민중문학啓導 다짐』, 『동아일보』, 1984.12.21, 7면 참조. 자실은 재창립 과정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조직의 목적이 “민족·민중문학의 창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에 맞춰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조직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 그간의 ‘대표간사제’를 폐지하고 ‘상임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자유실천문인협회, 『자유실천문인협회 ’84회의』(자료집), 1984.12.19(홍사단 대강당)[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이하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55311>] 참조.

이러한 자실의 활동은 긴급조치라는 비정상적인 시대의 풍압에 맞서 제도 와 비제도의 영역을 가로지르며 시대 환경에 조용하는 다층적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 수행되고 구체화될 수 있었다. 단적으로 자실의 창립 자체가 선언문 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수행되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실은 다층적 미디어 활동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조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으며 여타의 운동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 지향을 대중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그러한 미디어 활동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작업으로 자실의 기관지인 무크지 『실천문학』의 창간(1980.3.25.)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실의 결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실천문학』의 창간 또한 급작스레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70년대 자실의 다층적 미디어 활동의 연쇄와 파장 속에서 축적된 역량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렇듯 70년대 유신체제를 관통했던 자실의 활동과 그 역할에 비해, 자실 자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많지 않은 편이다. 진보적 문학운동의 집단적 형성과 그 활동의 전개라는 측면에서 자실의 의미<sup>13)</sup>와 70년대 문학검열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속에서 결성된 자실의 의미<sup>14)</sup>를 짚은 연구가 있지만, 자실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무크지 『실천문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2000년대 접어들어 ‘80년대 문학’을 역사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들은 『실천문학』의 출현을 70년대 유신체제로부터 산출된 사회문화적 토대에서 해명하거나 신군부의 정치적 억압과 문화적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저항의 방략으로 의미화했다.<sup>15)</sup> 이후 2010년대부터는 민족문학 및 문단 중심의 협소한 문학 개념을 상대화하고 아래로부터 새롭게 구성되어 있었던 복수의 문학성에 초점을 맞춰 80년대 문학을 재인식하는 과정에서 『실천문학』이 지니는 선구적 역할이 조명되었다.<sup>16)</sup> 이와 더불어

13) 고명철, 「진보적 문학운동의 역경과 갱신-‘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12 참조.

14)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12 참조.

15) 임현영,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4, 105~124쪽; 김성수, 「문학운동과 논픽션문학-1980년대 전반기 시기, 르포르를 중심으로」,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4, 125~151쪽.

80년대를 여러 국면으로 섬세하게 구분하는 가운데 『실천문학』이 무크지라는 “80년대적인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70년대 문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것”이었다는 주목할 만한 논의<sup>17)</sup>도 제출되었다.<sup>18)</sup>

요컨대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무크지 『실천문학』의 생성 조건과 담론의 위상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대적으로 『실천문학』의 발행 주체였던 자실에 대해서는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왕의 논의들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자실 자체를 중심축으로 두고 자실의 미디어 활동과 그 전략이라는 의미망 안에서 논의의 줄기를 구성하는 가운데 『실천문학』 또한 자실의 여러 미디어 활동 중 하나로 배치하여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자실의 미디어 활동을 선언문, 공연미디어 및 인쇄미디어, 무크지 『실천문학』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창립에서 『실천문학』의 창간에 이르기까지 자실의 미디어 활동이 지니는 성격과 그 의의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16)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동서인문학』 45, 인문과학연구소, 2011.12, 31~49쪽;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8, 83~104쪽.

17)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유신체제 문학의 의미-1972.12.12.부터 1983년까지의 비평담론」,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6, 415~449쪽.

18) 80년대 당대의 비평적 논의 또한 70년대 문학과 80년대 문학의 단절과 연속, 『창작과비평』 및 『문학과지성』과의 비교 속에서 무크지 『실천문학』이 지닌 내용과 형식의 새로움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다비, 「소집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70년대와 지금」, 『우리세대의 문학』 2-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문학과지성사, 1983.1, 30~35쪽; 황지우, 「무크 시대의 뒤안길 르포-홀어져 모이는 ‘작은 문학 운동’, 그 인맥과 사상」, 『마당』, 마당사, 1983.5, 58~61쪽; 백낙청, 「1983년의 무크운동」,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1984, 12쪽; 채광석, 「70년대 문화 운동의 반성-찢김의 문화에서 만남의 문화로」, 『마당』, 마당사, 1983.11, 102~108쪽; 「1983년 한국 창작 문화의 토양/문학-중간 결산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마당』, 마당사, 1983.12, 169~176쪽;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한국문학의 현단계』 III, 창작과비평사, 1984, 265~268쪽; 김정환, 「문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문학』 3, 실천문학사, 1982.11, 329~333쪽; 성민엽, 「문학무크지 풍향은 어디?」, 『정경문화』, 경향신문사, 1984.2, 296~302쪽; 김병익, 「80년대 문학의 천착-그 해명을 위한 질문」, 『문예중앙』, 1984. 여름, 52~59쪽 등 참조

## 2. ‘선언’이라는 미디어를 통한 정체성 확립

자신의 미디어에 관해 논의할 때, 선언이라는 행위 및 그것의 토대가 된 선언문을 빼놓고 서술하기란 불가능하다. 창립 당일의 풍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신은 선언이라는 수행적 발화를 통해 그 존재를 생성하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기입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창립선언문인 「자유실천문인협회의 101인 선언」<sup>19)</sup>은 당대 현실에 대해 “민족사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위기의 내용으로 “불신과 부정부패”, “애곡된 근대화정책”, ‘민중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꼽았다. 그리고 “몇몇 정치가의 독단적인 결정”과 “전국민적인 지혜와 용기”를 대립 구도로 놓으면서, 위기 극복은 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방략으로 ① 긴급조치로 인한 구속자 석방, ② 표현의 자유, ③ 서민 대중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노동법 개정, ④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을 결의하면서, 자신의 선언은 “인간 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창립선언문의 전반적인 어조는 급진적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언어로 정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의도한 바는 급진적이었다. 그것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라는 ‘정치가의 독단적 결정’으로 제정된 권력(pouvoir constitué)의 해체와 ‘전국민적인 지혜와 용기’에 기초한 “새로운 헌법”, 즉 구성[제한]권력(pouvoir constituant)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sup>20)</sup> 선언이라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와야할 미래를 당겨쓰는 언어적 양식”으로 “낡은 질서의 폐단을 공격”하고 “새로운 세계상과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기 마련이다.<sup>21)</sup> 즉 선언문은 파괴와 구성 혹은 봉기와 제도화라는 혁명의 문법을 내재

19) 자유실천문인협회의, 「자유실천문인협회의 101인 선언」, 1974.11.18[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885635>].

20) ‘제한권력(pouvoir constituant)’과 ‘제정된 권력(pouvoir constitué)’ 사이의 갈등, 주권과 혁명(봉기)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Antonio Negri, *Insurgencies: constituent power and the modern state*, Trans. Maurizio Boscagl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제1장과 제7장 등.

21)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33~35쪽 참조.

하고 있는 글쓰기 양식인 셈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대체로 구체제 미디어 질서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비정규적 혹은 기습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는 선언문은 더불어 발화자를 변화시켜 내적인 조직화를 형성하며, 그것이 “전염력을 갖고 전파되는 문서”, “독자나 청자를 불타오르게 할 메시지를 내포한 문서”인 점에서 수신자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발화자와 수신자 모두를 한데 어우러지게 만드는 공통적인 주체성을 구성한다.<sup>22)</sup>

1974년에 창립된 자실은 『84문학인 선언』을 통해 1984년 새롭게 재창립 될 때까지 선언문으로 시작되어 선언문으로 매듭지어졌다. [표1]과 같이 주요한 국면마다 자실은 다수의 선언문과 그 인접하는 글쓰기인 성명서와 공개 편지 등의 형식을 통해 유신체제와 긴급조치가 부과하는 현실에 개입하여 저항하며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기입하고자 했다. 직접적인 물리적 대결과 제도적 경합이 봉쇄된 시대적 조건에서 선언이라는 자실의 행위 및 문서는 유신체제에 비대칭적으로 맞서는 전복과 봉기의 언어라는 위상을 가졌다. 그러한 선언은 자실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의 전선을 공유하고 있었던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표1] 자실의 선언문 및 성명서<sup>23)</sup>

	날짜	제목		관련 상황 및 사건
㉠	74.11.18.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단독	창립 선언
㉡	74.12.09.	성명서[관계적 '한국문학인 선언'에 대응]	단독	민회회복 국민회의(77.11.27)
㉢	75.01.04.	자유실천문인협회의의 편지	단독	동아일보 1면 격려광고
㉣	75.02.25.	성명서[민주인사·문학인 탄압 항의, 표현의 자유]	단독	김병걸 해고·백낙청 파면 (74.11~12.)
㉤	75.02.10.	공동성명[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 반대]	공동	민회회복 국민회의

22) 브리엔 파스, 양효실·이러영·이진실·한우리·황미요조 옮김, 『(서문) 피 흘리는 가장자리: 페미니즘 선언문의 필요성』, 『우리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페미니즘 매니페스트, 폭발적으로 저항하는 언어들』, 바다출판사, 2021, 11~13쪽 참조.

23) [표1]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관련 자료와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 편찬위원회의 『한국작가회의 40년사: 1974-2014』(실천문화사, 2014)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f)	75.03.14.	최근의 사태에 대한 문학인 165인 선언	단독	긴급조치 9호(75.05.13.)
(g)	77.11.18.	자유실천문인협회 제3선언	단독	양성우 필화(77.05.13.)
(h)	77.12.08.	성명서[인권탄압 중지]	공동	청계노조 탄압(77.07.19.)
(i)	77.12.10.	자유실천문인협회 77인권 선언	단독	리영희 필화(77.11.23.)
(j)	77.12.19.	국제펜클럽 시드니대회를 지켜본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긴급성명 [대표 간사 고은]	단독	동일방직 탄압(78.02.21.)
(k)	78.03.13.	세계문학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대표 간사 고은]	단독	민족문학의 밤(78.04.24)
(l)	78.05.26.	시인, 지식인을 석방하라[자살+해직교수협의회]	공동	함평 고구마 사건(78.04.24.)
(m)	78.06.29.	성명서[전남대 교육지표 선언지지]	단독	『광장에 서서』 (78.06.25.)
(n)	78.08.10.	김지하를 내놓아라[대표 간사 고은]	단독	교육지표 선언(78.06.27.)
(o)	78.11.03.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동성명	공동	YH사건(79.08.09.)
(p)	79.04.06.	성명서[양성우 시인 석방 및 병보석 촉구]	단독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79.03.09.)
(q)	79.04.27.	고난받는 문학인을 위한 성명서	단독	안동농민회 사건(79.05.05.)
(r)	79.06.26.	성명서[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	단독	카터 방한 반대(79.06.11.)
(s)	79.07.03.	Letter to Poets of the World[대표 간사 고은]	단독	긴급조치 위반자 86명 석방 (79.07.17.)
(t)	79.07.06.	성명서[세계시인대회 중단과 구속문인 석방]	단독	
(u)	79.08.17.	성명서[YH 여성노동자 지지 투쟁]	단독	YH사건 지지 확산
(v)	79.08.20.	1979년 문학인 선언	단독	대학생시위 지속 발생(9월~)
(w)	79.09.04.	옳바른 연행사태에 대한 공동견해	공동	부마항쟁 / 10·26 사태
(x)	79.11.13.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공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 (79.11.24.)
(y)	80.02.00.	김지하 시인은 석방되어야 합니다(탄원서)	단독	5·18 광주민주화운동
(z)	84.12.19.	84문학인 선언	단독	채창림 선언

자신의 단독 선언의 경우, 아직은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기관지도 존재하지 않은 시기에 우선 조직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하고 그 활동의 방향을 설정·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창립 선언 이후 가파르게 변화하는 국면에서 발표된 (g), (v), (z) 등의 선언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자유실천문인협회 제3선언」[(g)]은 결성 3주년을 맞이하여 “긴급조치 9호 선포”로 인해 “실천적 활동이 정체된 사실”을 반성하고, 자신의 정신이 “투항주의적 직능

단체가 아니라 “문학적 이념집단”으로서 “사회적 실천에 이바지할 문학을 지향”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sup>24)</sup> 그리고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명제로 “민족과 자유”를 내세우며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이며 깊은 자책의 질문”을 지속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은 이념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했고, ‘사회적 실천’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학담론을 선언”<sup>25)</sup>하고자 했다. 이로부터 2년 후에 발표된 「1979년 문학인 선언」<sup>⑤</sup>은 “유신체제의 전체적 허구성”을 ‘정권의 독재’와 ‘자본의 독점’에서 찾으며, 경제개발이 지닌 “외세의존적”·“반민중적” 성격을 비판한다. 그런 가운데 전태일 사건, 동일방직 사건, 와이에치 여공 사태 등을 계열화하면서 “민중”과 “노동자들의 생존 발탁의 지경”을 강조했다. 물론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문인과 지식인에 대한 탄압과 구속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다만 이 선언문에서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인식이 두드러지면서, 지식인운동과 민중운동 간의 접촉을 문학운동으로써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지된다.<sup>26)</sup> 이러한 경향은 향후 「84문학인 선언」<sup>⑥</sup>에서는 “민중적·민족적 주체 역량”, “민중·민족운동”, “민중·민족의 해방” 등으로 좀 더 명료하게 개념화되기에 이른다.<sup>27)</sup>

이외에 자신의 단독 선언문들은 창립선언문에서 결의한 ① 긴급조치로 인한 구속자 석방, ② 표현의 자유, ③ 서민 대중의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노동법 개정, ④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 마련 등의 사항에 방점을 두고 작성되었다. 당대는 김지하, 양성우 등의 문인, 리영희, 송기숙, 문익환 등의 교수와 지식인, 자유언론실천운동의 언론인 등이 긴급조치 위반으로 탄압받고 구속되는 사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대였기에, ①·

24) 자유실천문인협회의, 「자유실천문인협회 제3선언」, 1977.11.18[오픈아카이브].

25)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문예운동사 연재5: 시민의 피·시민의 칼과 긴급조치 9호 시대」, 『내일을 여는 작가』 9, 작가회의출판부, 1997.9·10, 317~319쪽 참조. 여기서 박태순은 이 ‘제3선언’이 “자신의 자기 변신을 확연히 알려주는 한 문건”으로 평가하며, “문학은 바야흐로 지식인운동과 민중운동을 매개하면서 동시에 그 문학을 나름대로 사회운동의 정중앙에 내세워 문학광장을 건설해야 할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고 진단한다.

26) 자유실천문인협회의, 「1979년 문학인 선언」, 1979.8.20[오픈아카이브].

27) 자유실천문인협회의, 「84문학인 선언」, 1984.12.19[오픈아카이브].

Ⓜ·Ⓝ·Ⓟ·Ⓠ·Ⓡ·Ⓢ 등과 같은 선언문 및 성명서는 그들의 석방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한편, “그들의 투쟁과 문학운동에 동참할 결의와 자세로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sup>28)</sup>하기도 했다. 주지하듯이 ‘긴급조치(특히 제9호)’로 인해 유신헌법 및 체제에 대한 일체의 논의와 비판은 금지되고 있었기에<sup>29)</sup> 출판·언론 등에서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신은 “표현의 자유가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해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임을 믿고” “끝까지 분투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0)</sup> 또한 투쟁의 과제는 지식인의 층위에서 점차 ‘서민 대중’과 ‘노동자’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자신은 와이에이치 여공 사태가 “민중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sup>31)</sup>하고, 동일방직 사건 및 농촌과 농민에 대한 억압에 항의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sup>32)</sup>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선언에 기초한 연대의 전선은 지식인 중심에서 서서히 노동자로까지 확산되었으며, 그 발화는 Ⓜ·Ⓝ·Ⓟ·Ⓠ·Ⓡ·Ⓢ 등과 같이 국내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로 향해지기도 했다.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발표된 [표1]의 선언 및 성명 중, 유일하게 『자유실천문인협회의 편지』[©]만은 제도화된 인쇄미디어인 『동아일보』 1면의 광고란에 게재되었다. ‘자유언론실천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광고주를 위협하여 광고를 중단케 하자 동아일보사는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고<sup>33)</sup>, 이에 자신은 136인의 명의로 “십시일반으로 막걸리값, 소주값 따위를 걷어서” “신문의 작은 광고란을 성원”하며 “동아일보 운영의 정상화”를 응원했다. 그러면서 “각성의 국내언론기관이 추구해온 언론자유 실천이 문학의 표현자유, 작가의 시민적 활동과 동시병존의 사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28) 자유실천문인협회, 『고난받는 문학인을 위한 성명서』, 1979.4.27[오픈아카이브].

29)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292~295쪽 참조.

30) 자유실천문인협회, 『자유실천문인협회 77인권선언』, 1977.12.10[오픈아카이브].

31) 자유실천문인협회, 『성명서』, 1979.8.17[오픈아카이브].

32) 자유실천문인협회, 『1979년 문학인 선언』, 1979.8.20[오픈아카이브].

33) 동아일보 광고 탄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V) 언론·노동편, 국가정보원, 2007, 114~129쪽.

다.<sup>34)</sup> 나아가 자신은 ‘간사회’ 명의로 동아일보에 “범문학인의 상설란”을 마련하여 연속 광고를 신겠다는 두 번째 편지 광고를 신고,<sup>35)</sup> 다음날부터 4면에 『문인·자유수호격려』라는 고정란을 만들어 38회에 걸쳐 격려 광고를 게재하였다. 여기에는 140여 명의 문인 등이 자신의 고유명을 내걸고 일상사부터 정부 비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격려 의견을 전했다.<sup>36)</sup> 그리고 자유언론 실천운동 과정에서 기자들이 해고를 당하자, 자신은 그들이 복직될 때까지 해당 신문에 집필을 거부하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sup>37)</sup> 언론계를 향한 자신의 이러한 연대의 움직임에 당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뜨거운 성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화답했다.<sup>38)</sup>

이러한 국면을 거치면서 언론자유투쟁에 참여하는 언론인과 자실 문인들 사이에 공조가 이루어졌고 “관계가 아주 긴밀해”지기 시작했다.<sup>39)</sup> 이처럼 자실은 단독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h·①·②·w·x 등과 같이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공유하고 있었던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문학적 이념집단”으로서의 그 정치성과 운동성을 확장하고 연대성을 강화해 나갔다. 예컨대 반유신 연대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에 참여하여 유신헌법의 찬성을 유도하는 국민투표에 반대한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인권의 이름으로 방어하는 성명서[h]에 여러 단체와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결과적이기는 하지만, 70년대 중후반으로 접어

34)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편지』, 『동아일보』, 1975.1.4, 1면 광고. 이 문서 이전에도 자실은 “현대한 국사와 운명을 함께 해 온 동아일보에 가해지는 광고의 무더기 해약사태는 통탄할 일이며 이는 언론자유실천에 대한 지능적인 봉쇄로 인정, 이 같은 역압이 해소되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언론자유실천봉쇄 자유실천문협 성명』, 『동아일보』, 1974.12.27 참조. 여기서는 해당 성명서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 [표1]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35)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편지②』, 『동아일보』, 1975.1.27, 4면 광고.

36) 『문인·자유수호격려』, 『동아일보』, 1975.1.28~3.17, 4면 광고(전 38회). 이러한 자실의 ‘격려 광고’를 자실의 선언과 더불어 ‘시민성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이정숙, 『프레스 정동』의 탄생과 문학자의 ‘선언’ - 『동아일보』 ‘백지광고’에 나타난 시민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6.4.

37) 『동아·조선 집필 거부 자유실천문협 결의』, 『동아일보』, 1975.3.26, 7면.

38)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에의 집필과 출원거부 및 보류사태』, 1975.3.28[오픈아카이브].

39) 백낙청·임흥배, 『무엇보다도 훌륭한 작품의 생산에 헌신해야』, 『증언: 1970년대 문학운동』, 한국작가회의, 2014, 114쪽 참조.

들면서 그러한 공동성명의 주체는 문인, 교수, 언론인 등의 지식인층으로 수렴되었다. 긴급조치 제9호(75.5.13~79.12.8)가 약 4년 7개월간 존속되는 가운데, 반유신 정치활동가, 학생운동 관련자, 유신체제 비판자 등 위반자의 대다수가 지식인 계층에 해당<sup>40)</sup>했기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인용한 염무웅의 말처럼, 유신체제를 관통하면서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실은 해직교수협의회의 대학교수, 동아·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언론인 등과 공동으로 구속자 석방[①], 표현과 언론의 자유 보장[②] 등을 요구했고, “공동피해자들로서 지식인의 연대감을 표시”<sup>41)</sup>하며 시국에 대한 성명들을 발표했다. 그리하여 10·26 이후에는 “유신체제의 피해자들”로서 “교수, 언론인, 문인, 학생”을 공동 주체로 하여 “민주사회가 이룩되고 인간적 삶이 보장되는 미래”를 당겨 오고자 했다.<sup>42)</sup>

즉 반유신과 민주화를 둘러싸고 문인·교수·언론인·학생 네 집단의 지식인층에서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었고, 그러한 운동의 동력은 선언문 형식으로 사회에 발화되었다. 이처럼 자실은 반유신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지속적인 ‘선언’을 통해 ‘이념집단’으로서 조직의 노선을 정비하고 회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면서 내적 정체성을 다질 수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통해 교수·언론인·학생 등의 지식인집단과 접촉하여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고 또한 노동자·민중과 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의 책, 296쪽(〈별표 3〉 긴급조치위반 유형별 판결 현황) 참조.

41) 해직교수협의회·자유실천문인협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잇따른 연행사태에 대한 공동견해』, 1979.9.4[오픈아카이브].

42) 해직교수협의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자유실천문인협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민주청년협의회, 『나라의 민주화를 위하여』, 1979.11.13[오픈아카이브].

### 3. 공연미디어와 인쇄미디어의 결합 : ‘민족문학의 밤’과 『실천문학』

유신체제하에서 창립된 자신의 미디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 매체로 무크지 『실천문학』을 꼽는 데에 주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실천문학』의 창간은 평지돌출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여러 활동과 역량이 축적되는 가운데 현실화된 것이었다. 『실천문학』 제1권은 1980년 3월 25일 초판이 발행된 이래로, 동년 4월 10일 재판, 83년 4월 1일 중판 등이 발행되었고, 84년 10월 30일에는 증보판이 발행되었다.<sup>43)</sup> 내용상으로는 각각의 판본이 대동소이한데, 초판과 증보판에는 조금 다른 자료와 내용이 실려 있다. 초판의 첫 장에는 「새 문학인을 찾습니다」라는 원고모집 공지와 더불어 한 장의 사진([사진1])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증보판에는 「민중시대와 실천문학」이라는 좌담이 모두(冒頭)에 배치되었다.



[사진1] 『실천문학』 제1호 소재 ‘민족문학의 밤’

43) 필자가 살펴본 무크지 『실천문학』 제1권의 판본은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판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약 4년 7개월 동안, 발행인은 김진홍에서 양계봉[중판]으로 다시 이문규[증보판]로 바뀌었으며, 출판사는 전예원에서 실천문학사[증보판]로 변경되었다.

먼저 초판 첫머리에 놓인 사진부터 살펴보자. 거기에는 “자유실천문인협회의 주최 민족문학의 밤”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이는 1978년 4월 24일 성공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사였다.<sup>44)</sup> 무크지 창간호에 2년 전 행사를 내건 것을, 그것이 그만큼 자신과 『실천문학』을 상징하는 행사였으며 당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다. 긴급조치로 인해 ‘민족문학의 밤’에 대한 신문 보도를 찾아볼 수는 없지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는 “문인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기록했다.<sup>45)</sup> 행사를 준비한 박태순은 “15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하며 그때까지 “어떠한 재야운동 집회에서도 이런 인원을 끌어모은 적은 없었다”라고 그 규모와 열기를 증언한다.<sup>46)</sup> 또한 행사에서 김지하의 시 『1974년 1월』을 낭독했던 백낙청은 “굉장히 감명 깊은 모임”으로 기억하기도 했다.<sup>47)</sup>

‘민족문학의 밤’은 백기완의 백범사상연구소와 자신이 공동 주최한 “범재야운동권의 문학축전”, “문학 균중집회”라고 할 만한 성격의 행사였다.<sup>48)</sup> “문학사랑방 초청 각계각층 반독재투쟁 출정식장”을 만들어보자는 문익환의 발의로 준비된 이 행사는, 구속자가족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의 관계자, 동일방직 여성노동자, 민청학련 관련 제적 대학생 및 가족, 인권변호사, 공덕귀(윤보선 부인), 이희호 등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회 본당 이재정 신부의 배려로 행사가 시작되었다.<sup>49)</sup> 말하자면 자신은 당대 반유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새로운 시대의 만민공동회적인 성격”<sup>50)</sup>의 문학행사 및 문학집회를 기획하여 개최했다.

44) 『실천문학』 제1권에 실린 사진에는 4월 26일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오기이다.

45)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보도되지 않은 민주인권사건 일지』, 1978.10.24[오픈아카이브].

46)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문예운동사 연재6: 광야시대의 외침과 떠돌이들』, 『내일을 여는 작가』 10, 작가회의출판부, 1997.11·12, 340~341쪽 참조.

47) 백낙청·임흥배, 앞의 글, 앞의 책, 117쪽.

48) 박태순, 위의 글, 위의 책, 340쪽.

49) 박태순,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예운동 30년사』 Ⅲ, 작가회의출판부, 2003, 57~66쪽 참조.

50) 고은·박태순·이문구, 『민중시대와 실천문학』, 『실천문학』 제1권(증보판), 실천문학사, 1984, 8쪽.

[표2] 1978년 ‘민족문학의 밤’ 행사 프로그램<sup>51)</sup>

〈차례〉				
				사회: 이문구
제1부		제2부		
	개회사	고은	㉠ 보난대로 죽이리라(禹德淳)	장만철
	농악풍물놀이		㉡ 복수가(未詳)	조화순
㉠	북에서 온 어머니 편지(김규동)	김규동	㉢ [민요] 아리랑 타령(未詳)	구중서
㉠	한국의 아이(황명걸)	황명걸	㉣ 출발신호(洋兒)	황석영
㉠	별빛(민영)	민영	㉤ 3월 1일(金典)	계훈제
㉠	4월 19일, 시골에 와서(신경립)	신경립		
㉠	샅전 받는 손들을 위한 노래(강은교)	강은교	㉥ [노래] 미운사람(윤형주) 改詞	동일 방직 여공
㉠	파도처럼(조태일)	조태일	㉦ 동일방직 ‘동물사건’ 진상보고	
㉠	[노래] 바다 아가네(김지하·조남)	구창완		
㉠	실황 등(한승헌)	한승헌	㉧ 님의 침묵(한용운)	박태순
㉠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되었을까요 (정희성)	정희성	㉨ 그날이 오면(심훈)	문재린
㉠	갈꽃이 피면(송기원)	송기원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김윤
㉠	아, 4월(이시영)	이시영	㉪ 꽃(이육사)	이호철
㉠	새벽의 꿈(임정남)	임정남	㉫ 세월(윤근강)	강민
㉠	[입체시 낭독] 갯비나리(고은 장시)	백기완 최영희	㉬ 서시(윤동주)	천승세
	[노래] 선구자(윤해영·조두남)	정은숙	㉭ 꺾뎀기는 가라(신동엽)	신상우
	〈옥중시 낭독〉		㉮ 풀(김수영)	염무웅
㉡	1974년 1월(김지하)	백낙청	㉯ [창(唱)] 비어-소리내력(김지하)	임진택
㉡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양성우)	성래운		
㉡	꿈을 비는 마음·바위(문익환)	문익환	[강연] 항일시에 대하여	백기완

51) 최근 이승철에 의해 ‘민족문학의 밤’ 행사 녹취록(1부)이 정리·공개되었는데, 이를 통해 애당초 자실에서 배부한 식순과 실제 진행 식순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표2]는 실제 진행 기준에 맞춰 작성했고,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 사업단 편찬위원회, 앞의 책, 94~97쪽; 이승철, 『1978년 4월 24일의 〈민족문학의 밤〉』, 『푸른사상』 31, 푸른사상사, 2020.봄, 205~277쪽.

이 행사는 이문구가 전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크게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는데 시낭독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공연성을 고려한 노래, 입체시 낭독, 판소리, 강연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각 부 중간에 당시 탄압받고 있었던 두 집단, 지식인과 노동자와 관련된 코너를 상징적으로 배치하였다. 즉 제1부에는 ㉠과 같이 민청학련 사건과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된 김지하,<sup>52)</sup> 『노예수첩』 필화로 국가모독죄 및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양성우,<sup>53)</sup> ‘3·1 민주구국선언’ 관련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문익환<sup>54)</sup>의 작품을 ‘해직교수협의회’의 백낙청, 성래운 등이 낭독하여 당시 탄압받고 있었던 지식인 그룹의 활동을 의미화하였다. 그리고 이는 “감옥소에 문학인들을 가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문학을 가둘 수 없다”<sup>55)</sup>는 선언의 내용을 미리 실현한 것이기도 했다. 또한 제2부에서는 ㉡과 같이 이른바 ‘똥물 투척 사건’ 등의 탄압을 받으면서 민주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동일방직<sup>56)</sup> 여성노동자들이 개사한 노래를 부르고 진상보고를 하는 등 어떤 매개 없이 직접 목소리를 발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는 “고난받는 근로자…들과 더불어 끝까지 분투할 것을 다짐한다”<sup>57)</sup>는 선언을 실행하는 가운데 그것을 초과하는 의미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행사의 배치와 구성은 향후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실천문학’이라는 노선이 지니는 의미와 민중문학이라는 지향을 잠재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즉 ‘민중문학의 밤’에는 지식인 간의 연대는 물론이고 노동자·민중운동과 문학을 통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신의 고민이 발현되고 있었다.

제1부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자신이 중심이 되어 편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 같이 분단, 가난, 민중, 4·19, 빈자, 저항, 혁명과 함성,

52) 『김지하씨 재구속』, 『동아일보』, 1975.3.15, 1면 참조.

53)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 197~204쪽 참조.

54) 『제야인사 11명 구속』, 『동아일보』, 1976.3.11, 7면; 『명동사건 5명 석방』, 『경향신문』, 1978.1.1, 1면 참조.

55)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난받는 문학인을 위한 성명서』, 1979.4.27.

56)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93~143쪽 참조.

57)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77인권선언』, 1977.12.10.

염원 등을 노래한 자작시를 자실 회원들이 낭독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냈다. 낭독 시들은 대체로 기발표 작품들이었다. 이와 달리 정희성의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되었을까요』와 고은의 『갯비나리』는 현재성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었다. 정희성의 시는 여성노동자를 화자로 내세워 “우리는 먹을 만큼은 받아야/ 일할 수 있다고 말했을 뿐예요/ 공장측과 싸웠어요/(중략)/ 그들은 우리에게 똥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끌려갔지요”<sup>58)</sup> 등과 같이,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sup>59)</sup>고 한다. 고은의 작품은 당일 행사를 위해 준비된 장시였다.<sup>60)</sup> 『갯비나리』는 “민요에 가까운 비나리 형식을 차용”하고 민중을 화자로 삼아 민중의 민족적 수난사를 형상화하면서도 그에 굴하지 않는 저항과 투쟁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작품이었다.<sup>61)</sup> 당일 행사에서 백기완은 좌중을 압도하는 어조로 이 시를 낭독했고 적지 않은 울림을 자아내었다.

제2부의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백범사상연구소의 영향이 짙게 스며들어 있다. 시를 낭독한 이들은 대체로 자신의 회원이 많았지만, 해당 작품들의 출처와 그 전체를 종합해서 의미화했던 백기완의 강연을 염두에 두면, 백범사상연구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㉔의 9편은 모두 민족학교가 편찬하고 사상사가 1971년에 출판한 『항일민족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인데, 백기완은 장준하, 김지하 등과 함께 민족학교 운동을 수행하는 등 이 시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sup>62)</sup> 『항일민족론』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간하기도 했다.<sup>63)</sup> 『항일민족시집』은 근대계몽기 의병가사에서 식민지시대의 이육사 작품까지 항일 관련 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그런 의미

58) 정희성, 『어머니, 그 사슴은 어찌 되었을까요』, 『저문 강에 삼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1978.

59) 이승철, 앞의 글, 앞의 책, 222쪽.

60) 박태순, 앞의 책, 63쪽 참조. ‘민족문학의 밤’에서 백기완·최영희가 낭독한 『갯비나리』와 고은의 『새벽길』(창작과비평사, 1978)에 수록된 『갯비나리』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61) 고은의 『갯비나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효은, 『고은 시의 애도(哀悼) 양상 연구: 상실의 변인과 주체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96~205쪽.

62) 『부끄러움을 삼키며』, 민족학교 편, 『항일민족시집』, 사상사, 1971, 134쪽.

63) 백기완, 『항일민족론』, 사상사, 1971.

에서 ㉔의 작품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중적 항일과 저항으로 수렴된다. 또한 이 시집의 발간을 출간을 기념하는 ‘항일문학의 밤’이 1973년 12월 26일에 민족학교 주최로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1년 뒤 자신의 창립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는 염무웅, 신동문, 신경림, 황석영, 박태순, 조해일, 이호철, 조태일 등이 참여하기도 했다.<sup>64)</sup> 박태순은 ‘민족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 ‘항일문학의 밤’의 경험을 살려나가하고자 했다고 서술한 바 있는데,<sup>65)</sup> 그런 점에서도 두 행사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기도 했다. 1970년대 “식민지시대=유신시대, 일제=박정희 정권이라는 유비적 상상력은 확산되고 강화”되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항일’은 ‘반독재투쟁’의 다른 표현으로 발화되고 수용되었다.<sup>66)</sup> 폐회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항일시에 대하여』라는 강연에서 백기완이 “박정희가 국가원수의 자격이 없다는 발언”으로 나아간 것은,<sup>67)</sup>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민족문학의 밤’ 제2부는 『항일민족시집』에 기반한 ㉔에다가 윤곤강, 윤동주, 신동엽, 김수영, 김지하 등의 ㉕를 시계열적으로 덧붙여 ‘민족·민중’으로 의미화할 수 있는 하나의 문학사적 궤적을 그려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2부에서 다뤄진 문인들 중 김지하를 제외하면 모두 작고한 이들이었다. 다만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당시 수감중이었던 김지하도 온전히 살아있다고 보기란 어려웠다.

‘민족문학의 밤’ 제1부가 살아있는 문인들의 작품들로 채워졌다면 제2부는 작고한 문인들의 작품들로 편성되었는데, 김지하는 경첩처럼 양자를 절합하는 문인으로 배치되었다. 형식적으로 보면 공연성 및 현장성에 기초한 행사였지만, 그 편성과 배치를 고려하면 무형의 잡지나 단행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하여 이 행사 전체는 민족·민중이라는 주제가가 관통

64) 『숨은 민중의 노래에 참다운 민족의 열』, 『동아일보』, 1973.12.28, 5면.

65) 박태순, 앞의 책, 58쪽.

66) 권보드래, 『내 안의 일본-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10, 429~431쪽.

67)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 문예운동사 연재6: 광야시대의 외침과 떠돌이들』, 『내일을 여는 작가』 10, 작가회의출판부, 1997.11·12, 342쪽 참조.

하는 가운데 그 의미를 획득하고 있었다. 고은의 개회사는 어쨌거나 자신의 노선과 행사 전체를 아우르는 권두언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sup>68)</sup> 그는 극복하지 못한 식민지와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 문학의 경장을 위한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민족문학”, “민중문학”, “인간화의 문학”을 그 방향으로 제시했다. 즉 자신은 “반봉건 반외세의 역사발전적 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 “궁극적으로 민중이 쓰는 문학”으로서의 민중문학, “사회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의식화시키는 지평”으로서의 인간화의 문학을 지향했던 것이며, ‘민족문학의 밤’은 그와 같은 지향을 직접적으로 발화하는 하나의 계기였던 셈이다.

‘민족문학의 밤’은 현장성과 공연성에 기반을 둔 열정적이고 정념적인 미디어였다. 그것은 문자미디어를 목독에 기초한 개별적이고도 고립적인 독법이라는 관습에서 벗어나게끔 했다. 그리하여 골방에서 광장으로 확장된 문자 미디어는 이분법적으로 양분화되어 있던 발화와 수신 순간들을 하나의 시공간에서 공명하게 만듦으로써 새로운 정동과 주체성의 생성으로 나아간다. 자신은 그러한 순간을 일회적으로 휘발시키지 않고 복제·변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자신은 이 행사를 녹음한 테이프를 비공식적으로 제작하여 국내를 비롯하여 재외 교포사회에 유통시켰다.<sup>69)</sup> 또한 자신은 ‘민족문학의 밤’ 경험을 토대로 삼아 ‘김지하 문학의 밤’,<sup>70)</sup> ‘고난받는 문학인의 밤’<sup>71)</sup> 등의 개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독재의 밤’을 ‘광장의 밤’으로 전화시키고 나아가 그것을 확산시키고자 경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실천문학』 제1권의 증보판 첫머리에 실려있는 「민중시대

68) 이승철, 앞의 글, 앞의 책, 226~233쪽.

69) 박태순에 따르면, ‘민족문학의 밤’ 녹음테이프 200벌을 제작하여 국내와 일본, 미국, 캐나다, 서독 등의 교포사회에 자실 후원비 모금용으로 1세트당 5천원에 유통하여 많은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 박태순, 위의 글, 위의 책, 같은 쪽 참조.

70) 김지하구출위원회, 『김지하 문학의 밤』, 1978.12.21[오픈아카이브]; 김지하 시인 구출위원회 원주 지부, 『김지하 시인 문학의 밤』, 1979.1.11[오픈아카이브] 등 참조.

71)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고난받는 문학인의 밤』, 1979.4.24[오픈아카이브];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 편찬위원회, 앞의 책, 105~107쪽 참조.

와 실천문학』이라는 좌담회에서 무크지 『실천문학』을 창간하게 된 과정 중 하나로 언급된 『광장에 서서』<sup>72)</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광장에 서서』의 출간은 “구속문인들을 위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원고료 없이 문인들이 글 한 편씩을 내서 인쇄”한 것이었는데, 자실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부정기간행물로서 『실천문학』을 내게까지” 되었던 것이다.<sup>73)</sup> 박태순 역시 『광장에 서서』가 “후일 자실 기관지로 잡지 단행본인 무크 『실천문학』이 발간돼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그 출간의 의의를 명료하게 짚었다.<sup>74)</sup>

『광장에 서서』는 당시 자실의 실무간사였던 임정남이 설립한 출판사 ‘새벽’에서 간행되었는데,<sup>75)</sup> 이 출판사가 출간한 첫 단행본이었다. 책의 필자 21인 모두 자실 회원이었음에도<sup>76)</sup> 검열 등을 의식해서였는지 자실을 대표 필자로 내세우지는 않았다.<sup>77)</sup> 다만 뒤표지에 “역사의 행진에 참가한 한국대표 문학인의 진실”이라는 구절과 필자의 사진 등을 기입하여 책의 주제와 필자의 성격을 드러냈다. 책은 필자들의 기발표된 수필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당시는 주제별·신분별 공저 형식의 수필집이 크게 유행하고 있었는데,<sup>78)</sup> 『광장의 서서』 역시 그러한 대중성에 기초한 출판 흐름을 의식한 작업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자실은 이 단행본을 통해 “민족문학을 주장하는 작가”로 그 정체성을 표출하고 구속 문인 후원을 위한 “문학인들의 공제기금”을 마련하고자 했기 때문이다.<sup>79)</sup>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대중적 반향은 얻

72) 고은 외, 『광장에 서서』, 새벽, 1978.

73) 고은·박태순·이문구, 앞의 글, 앞의 책, 5쪽.

74)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문예운동사 연재6: 광야시대의 외침과 떠돌이들」, 『내일을 여는 작가』 10, 작가회의출판부, 1997.11·12, 338쪽.

75) 「문인 30여 명이 출판사를 자영」, 『중앙일보』, 1979.4.14, 4면.

76) 참여했던 자실 회원 21인은 다음과 같다. 구중서, 박태원, 백나청, 이호철, 조태일, 황석영, 고은, 김병길, 신상웅, 염무웅, 김병익, 윤홍길, 임현영, 이문구, 신경림, 강은교, 김주영, 서영은, 이시영, 송기원, 남정현.

77) ‘민족문학의 밤’ 다음날과 3일 뒤인 1978년 4월 25일과 27일에 각각 행사를 주도한 백기완과 고은이 중앙정보부에 강제 연행되었다가 문인 및 언론인 등의 농성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5월 3일 풀려났다. 이승철, 앞의 글, 앞의 책, 222~224쪽 참조. 『광장에 서서』는 한 달 남짓 뒤인 6월 25일에 발행되었는데, 이때는 앞서 겪었던 탄압의 풍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을 것이다.

78) 『올해도 에세이집 출판붐… 출판사 재미 짝잡』, 『경향신문』, 1978.1.18, 5면.

79) 「문인 21명 인세를 기금으로」, 『경향신문』, 1978.7.20, 5면.

지 못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2부와 3부는 그야말로 신변 잡기적인 성격의 수필 모음인데 반해, 1부에는 창립 이후 전개해온 자신의 지향과 조응하는 성격의 글들이 배치되었다.<sup>80)</sup> 1부의 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편과 특수라는 관점에서 민족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사유하는 시도, 민족현실이라는 특수성에 기반을 두어 인권사상이라는 보편성의 문제를 구체화할 필요성을 언급하는 서술, 제3세계적 시각을 배면에 깔고 흑인문학의 위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문학의 의의의 가늠하고자 하는 작업 등이 눈에 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의 소시민 계층의 한계를 짚고, 여성노동자의 구체적인 삶의 실태와 곤경을 소개하면서 최저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는 논의가 더해졌다. 또한 시인의 삶을 통해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의 잔재를 반성하고 민족적 민중운동을 의미화하려는 작업과 역사의식의 각성을 통한 불교의 민중적·민족적 육화를 주장하는 사유가 있었다. 요컨대 제1부는 민족과 민중, 제3세계론, 계급과 역사의식 등으로 수렴될 만한 것으로 잡지로 치면 특집에 해당하는 위치를 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민족문학의 밤’이나 여타의 단행본 기획에 비춰볼 때, 그 구심력이나 밀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기 발표된 글을 한자리에 모은 탓에 그 기획의 의도가 명료하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그나마 『광장에 서서』 전체를 아우르는 머리말에서 단행본의 기획 의도가 드러난다. 이는 당시 자신의 대표간사였던 고은이 「우리들의 마당을 위하여」라는 제명으로 작성하였다. 한 해 전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자신은 “민족통일의 그날까지, 그리고 이 암흑이 걷히는 그날까지 (중략) 기나긴 행렬이 될 것”을 선언한 바 있었는데,<sup>81)</sup> 머리말에서는 그 행렬을 ‘광장’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지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 광장은 과거로부터는 독립운동의 기지였던 “북간도의 소박한 광장”과 이어져 있었고, 현재적으로는 “민중의 열정”에 기반을 둔 “삶

80) 1부에 게재된 글은 다음과 같다. 구중서, 「예술의 민족성과 세계성」; 박태순, 「미국 흑인문학과 랭스턴 휴즈」; 백낙청, 「민족현실과 인권운동」; 이호철, 「소시민적인 것」; 조태일, 「고여있는 삶과 움직이는 삶」; 황석영, 「잃어버린 순이」; 고은, 「불교적 역사의식」.

81)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제3선언」, 1977.11.18[오픈아카이브].

의 운동장으로서의 광장”이었으며, 나아가 “분단된 민족의 완전한 결합을 이루는 크나큰 거리의 광장”으로 향하는 것이었다.<sup>82)</sup>

즉, ‘민족문학의 밤’과 『광장의 서서』는 각각 개별적인 기획이었지만, 한편으로 양자는 짝패를 이루는 것이기도 했다. 전자가 운문에 기반을 둔 공연 미디어적인 성격이 두드러졌다면 후자는 산문에 기초한 활자 미디어적 성격이 좀 더 강했는데, 사실상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활동을 풍성하게 하는 기획이자 시도로서 자리매김되었다. 자신이 지향했던 문학운동의 측면에서 ‘민족문학의 밤’은 그 정치성과 대중성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기획이었지만, 지속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했다. 그와 달리 『광장에 서서』는 검열을 강하게 의식한 까닭인지 그 정치적 지향은 명료하게 발화되지 못했으며 중점을 두었던 대중적 성과도 미약했지만, 자신이 최초로 발행한 기록성에 기초한 출판/인쇄미디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니는 것이었다. 자신의 입장에서 양자가 지닌 장점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미디어를 구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행하게 되는 무크지 『실천문학』이 그러한 의도 속에서 발명된 미디어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민족문학의 밤’과 『광장에 서서』 두 기획을 주도하거나 그것에 참여했던 자신의 회원은 상당수 겹치고 있으며, 결과적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무크지 『실천문학』의 주요한 필자로 참여하게 된다. 말하자면 『실천문학』은 필진 구성의 측면에서도 앞의 두 기획을 연속화하고 있었던 셈이다.<sup>83)</sup>

#### 4. 『실천문학』의 창간과 지식인집단의 연대

무크지 『실천문학』 제1권의 발행일은 1980년 3월 20일이다. 10·26사태

82) 고은, 『우리들의 마당을 위하여』, 『광장에 서서』, 새벽, 1978.

83) 예컨대 두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고은, 문익환, 양성우, 김규동, 신경림, 조태일, 강은교, 이문구, 백낙청, 김병익, 구중서, 박태순, 송기원, 이시영, 성래운, 임진택, 김지하 등은 『실천문학』에서도 주요 필자로 활동한다.

로 유신체제는 갑작스레 막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고 12·12쿠데타로 인해 다시 긴장감이 감도는 시기였다. 박태순에 따르면, 사실의 기관지 발행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유신체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던 1979년 9월 중순이었다.<sup>84)</sup> 이 무렵 자실은 앞서 살펴본 [표1]과 같이 해직교수협의회,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과 같이 지식인집단과 연대를 강화하여 구속된 문인·교수의 석방, YH노동자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비정상적 권력체제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sup>85)</sup> 1979년 9월 23일 자실의 주최로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범민주인사 단합대회’에서 기관지 무크지 발간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되었고, 다음날인 24일 창작과 비평사에 간행을 타진하였다가 창작과비평사가 완곡하게 사양하자 김진홍이 세운 출판사인 ‘전예원’과 출간을 합의하게 된다.

10월 1일에 열린 첫 편집회의에서 고은, 김병걸, 백낙청, 이문구, 박태순, 임정남, 정희성, 이시영, 송기원이 편집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박태순이 편집주간을 담당하기로 했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제호는 “신작(新作)”으로 하고 잡지의 성격을 띤 단행본 형식의 무크로 11월 초 발간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는 고난 받는 문인들을 위한 기금 마련과 문단의 유과를 넘어선 ‘광장’ 마련을 그 목적으로 내세웠다.<sup>86)</sup> 그러나 10·26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정되었던 11월 발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12월 8일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어<sup>87)</sup> 고은, 문익환 등이 석방되면서 기관지 창간 작업

84) 이하 자실의 기관지인 무크지 『실천문학』의 발행 논의 및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문예운동사 연재8: 문예운동사의 새로운 정립을 위하여」, 『내일을 여는 작가』 10, 한울, 1998. 여름, 445~458쪽; 박태순,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예운동 30년사』 III, 작가회의출판부, 2003, 178~187쪽; 박태순·이명원, 『소설가 박태순에게 들어보는 1980년대와 『실천문학』, 그리고 문학운동』,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2.2; 박태순·전성태, 「국가의 국민이어 안녕! 국민의 국가로다!」, 『증언: 1970년대 문학운동』, 한국작가회의, 2014.

85)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979년 문학인 선언』, 1979.8.24; 해직교수협의회·자유실천문인협의회·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잇따른 연행사태에 대한 공동견해』, 1979.9.4.

86) 『어려운 문인 돕기 운동 단행본 출판 수익을 기금으로』, 『동아일보』, 1979.10.9, 5면; 『잡지 단행본 성격 띤 『신작』』, 『조선일보』, 1979.10.13, 5면; 『『신작』 발간 불우 문인 돕는 데 뜻 있어』, 『경향신문』, 1979.10.17, 5면 참조.

87) 「긴급조치 9호 해제 구속자 68명 석방」, 『경향신문』, 1979.12.8, 1면.

은 좀 더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제호는 “실천문학”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역사에 던지는 목소리”, “민중의 최전선에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창간호” 등의 부제가 덧붙여지게 된다. 즉 『신작』에서 『실천문학』으로 변경되면서 기관지의 성격이 좀 더 명료해지는 동시에 운동성 또한 강화되었던 것이다.

『실천문학』 창간호의 발행 과정을 놓고 보면, 이는 자실의 적극적인 활동 가였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범지식인집단의 참여 및 연대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컨대 창간호 특집 가운데 설문조사 분석을 주된 내용으로 한 『사회과학자가 보는 한국문학』은 그 응답 대상자를 대학의 사회과학자로 선정하여 문학 영역을 넘어서 지식인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해당 문항에서도 “문학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유를 반영하였다.<sup>88)</sup> 또한 이 설문조사의 문항을 작성하는 데는 동아일보 출신의 해직언론인 김진홍, 장운환, 임채정 등이 큰 역할을 했다.<sup>89)</sup> 그리고 창간호와 제2호의 경우 편집 실무를 담당한 사람은 긴급조치 등의 위반으로 제명되었다가 복권된 대학생 권오걸 구은우 등이었다.<sup>90)</sup> 당시는 비상계엄 상태로 계엄포고 1호에 따라 언론·출판·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sup>91)</sup> 따라서 『실천문학』 창간호 역시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에게 사전 검열을 받고<sup>92)</sup> 문화공보부로부터 납본필증도 교부받아야 하는 등 이중의 검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 대표 김진홍은 무크지의 불온성을 문제 삼은 검열 주체로부터 물리적 흥역을 치르기도 하고 삭제된 원고의 조판을 새로이 하는 등 여러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대단한 집념’을 발휘하여 출판을 관철시키고 창

88) 『사회과학자가 보는 한국문학』, 『실천문학』 제1권, 전예원, 1980.

89) 박태순, 『민족문학작가회의 문예운동 30년사』 III, 작가회의출판부, 2003, 183쪽.

90) 『각 대학 복학대상자』, 『동아일보』, 1980.1.26, 7면; 박태순·전성태, 앞의 글, 앞의 책, 179쪽 각주 참조.

91) 『계엄포고 1호』, 『동아일보』, 1979.10.27, 1면.

92) 계엄사령부 보도검열단의 사전 검열은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민규, 『신군부와 언론 검열1: 비상계엄 456일, 사라진 기사만 1만여 건』, 『신문과방송』 59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4. 참조.

간호를 서점에 배포하였다고 한다.<sup>93)</sup>

이처럼 『실천문학』의 창간은 고은, 박태순 등의 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 외에도 김병걸 백낙청 등의 해직교수와 권오걸 구은우 등의 제명되었던 대학생, 그리고 김진홍 장윤환 임채정 등의 해직언론인 출신의 출판·번역 종사자 등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가운데 비로소 성사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문단·대학·언론(출판) 등 당시 제도권에서 추방 또는 배제되었던 지식인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실천문학』의 창간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소 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인들의 유기적 구성은 유신체제를 둘러싼 지배와 저항의 작용과 반작용 속에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유신체제는 “당대 한국사회 전 분야에 지배/저항의 분극화(polarization) 현상”을 야기했는데, 그러한 현상은 특히 지식인사회에서 두드러졌다.<sup>94)</sup> 그리고 지식인사회의 대표적인 거점은 담론을 생산하는 대학·문단·언론의 제도영역이었다. 70년대 유신체제는 각각의 영역을 법률·정책·공작 등을 통해 포섭해 나가면서 순치하였고 저항하는 세력은 제도 밖으로 배제하여 존재 기반을 허물어버리는 통치술을 구사하였다. 예컨대 반유신의 목소리는 나는 교수들은 대학에서 추방하고자 했고,<sup>95)</sup> 그러한 가운데 당국은 김병걸·백낙청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한 교수에 대해서 1974년 말부터 강제 해직시키기 시작했으며,<sup>96)</sup>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추방당한 교수들을<sup>97)</sup> 중심으로 해직교수협의회가 발족(1978.3.24)했는

93) 박태순, 위의 책, 186쪽 참조.

94) 이봉변,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의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2, 349쪽.

95) 대학에 대해서 당국은 교수와 대학생 두 집단을 통제하기 위해 투트랙 전술을 전개하였다. 70년대 유신체제는 국가 주도의 대학 개혁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교육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미시적으로 대학사회를 지배·통제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교수집단에게 유신의 이데올로그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이들을 포섭하고자 했으며, 반유신의 목소리는 나는 교수들은 대학에서 추방하고자 했다. 김정인,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8, 204~236쪽; 이경숙, 『유신과 대학』, 역락, 2018, 158~173쪽 참조.

96) 김병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창작과비평사, 1994, 251~256쪽 참조.

97) 1976년에는 교수제임용제를 악용하여 대학교수 400여명을 제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등 1974년 이래로 유신체제에 비협조적인 교수 430여명을 해직시켰다. 「74년 이후 해직교수 430명 선」, 『동아

데, 여기에는 『실천문학』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김병걸, 백낙청, 성래운, 염무웅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sup>98)</sup> 또한 당국은 긴급조치를 통해 대학생들을 구속하고 대학에서 제명하는 배제와 추방의 통치술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였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실천문학』 창간호와 제2호의 편집 실무를 담당한 권오걸은 민청학련자로 구속되어 대학에서 제명되었던 대학생이었으며<sup>99)</sup> 구은우 역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대학에서 제명된 이력을 지니고 있었다.<sup>100)</sup>

문단에 대해서 정부는 세태풍자적이거나 체제비판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필화사건으로 작품에 대해서 검열을 가하고 작가의 인신을 구속시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김지하의 「오적」·「비어」 필화사건과 양성우의 「겨울공화국」·「노예수첩」 필화사건을 들 수 있는데, 당국은 반공법·긴급조치 위반 등의 법률을 통해 김지하와 양성우를 구속시켜 오랫동안 문단과 격리시켰다.<sup>101)</sup> 그리고 이러한 필화와 구속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구속자 석방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운동을 주도했던 고은·박태순 등을 지속적으로 연행·구속함으로써 운동의 연쇄와 확산을 제지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지배와 배제의 강화는 역설적으로 저항과 연대의 확산으로 귀결되었다. 문단에 대한 탄압은 자신이 전개한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대중적 동의를 얻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실천문학』 제3호는 ‘김지하의 문학과 삶’ 특집을 마련함으로써<sup>102)</sup> 독자들의 호응을 통해 그와 같은 지배와 배제를 역전시키고 저항의 흐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획을 추진하기도

일보』, 1979.12.11, 7면.

98) 김정남, 앞의 책, 221~228쪽 참조.

99)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학련』, 메디치, 2018, 633쪽 참조.

100) 대학에서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인 집단은 대학생들이었다. 일진 일퇴의 공방 속에서 대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결성(1974)을 꾀하면서 전국 수준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고, 이에 정부는 용공혐의를 덧씌우면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며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이에 관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2-유신체제기, 돌베개, 2009, 101~175쪽 참조.

101) 김지하, 「오적/비어」; 양성우, 「겨울공화국/노예수첩/우리는 열 번이고 책을 던졌다」, 『한국문학 필화작품집』, 황토, 1989 참조.

102) 김지하, 「창조적 통일을 위하여-로우터스상 수상 연설 전문」; 김성동, 「광대 또는 보살」; 윤구병,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시적 진실」, 『실천문학』 제3권, 실천문학사, 1982.11 참조.

하였다.

언론계의 경우<sup>103)</sup>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보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아일보 기자의 선도로 ‘자유언론실천선언’(1974.10.24.)이 수행되자 당국은 광고 탄압으로 언론사 경영진을 압박했으며, 그러자 경영진들은 체제비판적인 기자들을 해직시키는 방법을 통해 당국과 타협하였다. 이후 해직기자들을 중심으로 동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조직되어 복직과 자유언론실천을 촉구하게 되는데, 유신체제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주요활동가들이 구속당하기도 하고 또한 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sup>104)</sup> 이처럼 언론제도권에서 배제된 해직언론인들은 출판사 경영과 번역 작업(종각번역실)을 통해 생계와 활동을 이어갔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천문학』 창간호 구성에 힘을 보탠 임채정은 출판사 예조각을 경영하고 있었고,<sup>105)</sup> 장윤환은 종각번역실에서 『말콤엑스』 등을 번역하고 있었다.<sup>106)</sup> 그리고 『실천문학』 창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던 김진홍이 경영한 ‘전예원’은 1977년 5월에 창립되었는데 “해직언론인들이 만든 출판사 가운데서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가장 컸다”.<sup>107)</sup> 전예원은 한국문학좌담집, 고은의 수필집, 박태순의 장편소설 등을 출간하면서<sup>108)</sup> 문단과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실천문학』 출간을 전후해서는 “민중과 더불어 민중과 나란히”, “민중과 함께 달려가는 책들”이라는 지향을 내세우면서<sup>109)</sup> 출판사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표방하기도

103) 언론계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로 군사 정권의 ‘언론통제 강화’와 ‘경제적 특혜 제공’ 속에서 비판적 논조를 상실하고 안정적인 기업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유신체제 성립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기에 이른다. 이에 관해서는 박용규, 『신문의 사회문화사』,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194~205쪽 참조.

104)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의 경과 및 동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결성과 전개에 대해서는, 동이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앞의 책 참조.

105) 조성우, 『민주청년협의회와 이른바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 『기억과 전망』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12, 539쪽 참조.

106) 장윤환, 『동아일보와 박정희와 나』, 『1975 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 인카운터, 2013 참조.

107) 조상호, 『한국출판의 언론적 기능과 시대적 역할에 관한 연구 - 권위주의체제하(1972~1987)의 사회과학 출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107~109쪽.

108) 유중호·염무웅 편, 『한국문학, 무엇이 문제인가』, 전예원, 1977; 고은, 『사랑을 위하여』, 전예원, 1978; 박태순, 『어제 불던 바람』, 전예원, 1979.

109) 김종복 외, 『봄을 바라보는 아틀리에: 여류화가 11인 에세이』, 전예원, 1979 뒤표지; 조지 가디너, 정연권 역, 『여수상 대처』, 전예원, 1979 뒤표지 참조.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예원은 무크지 『실천문학』의 창간을 출판제도적으로 견인했던 것이다.<sup>110)</sup>

다시 말해, 대학·언론·문단 등 반유신의 언어와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제도영역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정책을 전개해 나갔으며, 순치되지 않는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해직·구속·필화 등을 통해 제도 밖으로 추방하는 식으로 지식인집단을 통제하고자 했다. 각 영역에서 추방당한 자들은 고립되지 않고 각 영역에 기반을 둔 대항적 협의체를 조직하는 가운데 인접 영역의 지식인들과도 단속적으로 연대해 나아갔다. 그런 가운데 자실의 『실천문학』이라는 미디어는 각 영역의 지식인들을 한데 모아내는 이례적인 ‘광장’으로서 기능했으며, 역으로 그러한 네트워킹이 뒷받침되었기에 『실천문학』이라는 기획은 물질성을 지니는 무크지로 현실화될 수 있었다. 자실이 그 기관지로 발간한 무크 『실천문학』은 [표3]과 같다.

[표3] 자실의 기관지 무크 『실천문학』 권별 발행 제호 및 시기

	자실 기관지 『실천문학』	시기	출판사
제1권	역사에 던지는 목소리	1980.03.25	전예원
	민중의 최전선에서 새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창간호		
제2권	이 땅에 살기를 위하여	1981.12.20	실천 문학사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제3권	말이어 솟아오르는 내일이여	1982.11.10	실천 문학사
	민중의 새 시대 문학운동을 실천하는 부정기간행물(MOOK)		
제4권	삶과 노동과 문학	1983.12.05	실천 문학사
	민중시대의 문학적 실천을 위한 부정기간행물		
제5권	드디어 민중의 바다로	1984.10.20	실천 문학사
	민중시대의 문학적 실천을 위한 부정기간행물		

110) 무크지 『실천문학』은 제2권부터 실천문학사로 출판사가 변경되어 발행되었지만, 제3권까지는 전예원이 공급처 역할을 수행하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실천문학』 제3권, 실천문학사, 1982.11, 관련지 참조.

제1권 증보판	역사에 던지는 목소리 · 증보판	1984.10.30	실천 문학사
	민중시대의 문학적 실천을 위한 부정기간행물		

『실천문학』 제1권은 검열을 의식해서였는지 통상적인 ‘권두언’ 대신 ‘책 끝에’ 『보천보 뗏목꾼들의 살림』이라는 글을 통해 『실천문학』을 창간하는 사실의 과거 역사적 연원, 현재의 상황, 미래적 지향을 담았다.<sup>111)</sup> “항일 유격전”과 “조선독립군의 면모” 등에서 발현되는 항일정신에서 자신의 연원을 찾았고, 그와 같은 유격전을 뒷받침했던 “보천보 뗏목 살림의 풍경”에 “자유실천문인협회의회의 풍경”을 겹쳐놓는 방식으로 그 현재적 상황을 규정했다. 그리하여 “일제 잔재의 문학적 청산”, “봉건 잔재 문화의 청산”을 전제로 한 “문학의 자유”,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 실현을 과제로 내세우는 한편, 동시에 “민족문학이 실천적 운동” “제3세계 비동맹 문화의 의지”라는 특수한 가치를 자신의 미래적 지향으로 제기했다. 즉 역사로부터는 민족적 가치를 현재적으로 재구성하고, 현실에서는 도래할 “민중의 각성되어진 출현”을 환영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은 70년대 활동을 갈무리하고 80년대 활동을 전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신의 지향은 『실천문학』 제1권의 주요한 특집과 기획에 반영되었다. 민족문학론, 사회와 문학의 동시적 열림을 추구하는 논의, 민중의 시대를 구현하는 문학 등의 측면에서 70년대 문학을 정리하고 80년대 문학의 과제를 점검해보는 특집이 구성되었다.<sup>112)</sup> 이러한 회고와 전망은 문학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접 예술 영역인 미술·연극·한국무용·사회철학 등으로 확장하여 그 의미를 탐색하는 논의들이 꾸러졌다.<sup>113)</sup> 그리고 제3세계문학에 대한 관심과 전망을 가늠해보는 작품과 논의가 게재되기도 했다.<sup>114)</sup> 나아가

111) 『보천보 뗏목꾼들의 살림』, 『실천문학』 제1권, 전예원, 1980.3.

112) 백낙청, 『민족문학의 새로운 과제』; 김병익, 『두 열림을 향하여』; 송건호, 『문학과 인간과 사회』.

113) 원동석, 『누구의, 누구를 위한 길인가』(미술); 오종우, 『진정한 연극을 위한 새로운 실험』(연극); 채희완, 『춤의사회적 과제와 전망』(한국무용); 이인석, 『프랑크푸르트학과와 저항이데올로기』(사회철학).

114) 압텔 와하드 엘 메시리 편, 박태순 역, 『팔레스티나 민족시집』; 구중서, 『제3세계민족문학에의 전망』.

60년대적인 순수참여논쟁이라는 소박한 논의를 프레임 극복하고 실천문학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설문과 토론이 마련되기도 했다.<sup>115)</sup> 『실천문학』 제1권은 “새 시대의 문학운동을 실천”하겠다는 포부 속에서 80년대적인 새로운 입론을 지향하고자 했지만, 그 담론과 언어적 규범은 70년대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sup>116)</sup> 다만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5월 광주를 관통하고 해를 거듭해 가면서, 특히 4~5권으로 접어들면서<sup>117)</sup> 점차 80년대 담론과 언어적 규범을 표출하면서 민족·민중·노동 등과 같이 시대적 주제어를 예각화하며 현실적 긴장도를 높여갔다.<sup>118)</sup>

## 5. 나오며: 대항미디어 운동으로서의 사실

『실천문학』 제3권이 발간된 이후인 1983년 2월 무렵 황지우는 실천문학사를 방문하여 박태순을 만나게 되는데, 그로부터 무크지가 갖는 미디어적 성격에 대해서 “부정기적, 즉 기습적, 즉 게릴라적”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황지우는 박태순의 말의 어원이 『항일민족시집』의 발문을 쓴 김지하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실천문학』을 비롯한 당대의 무크지 출간에 대해 “게릴라적인 문화운동”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sup>119)</sup> 이와 관련하여 『항일민족시집』의 발문에는 민족학교운동 및 시집의 편찬을 “지성의 유격전”<sup>120)</sup>으로 규정하는 대목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발문에 언급되어 있듯이 『항일민족시집』의 서문[序]은 함석헌이 썼는데, 그는 1967년 1월 『사상계』에 「언론의 게릴라전을 제창한다」하는 글을 발표한 바 있었다.<sup>121)</sup> 함석헌은 박정희 군

115) 『사회과학자가 보는 한국 문학』(문학관 조사연구); 박태순·정희성·송기원·이시영, 『문학의 실제, 문학의 실천』.

116) 고봉준, 앞의 글, 앞의 책, 434쪽 참조.

117) 4권의 특집은 “삶과 노동과 문학”으로, 5권의 특집은 “80년대란 무엇인가”로 구성되었다.

118) 자실의 기관지로 발간된 무크 『실천문학』 제1~5권의 구체적인 논조와 담론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다른 지면을 요한다.

119) 황지우, 앞의 글, 앞의 책, 59쪽.

120) 「부끄러움을 삼키며」, 『항일민족시집』, 1971, 134쪽.

121) 함석헌, 「언론의 게릴라전을 제창한다」, 『사상계』, 사상계사, 1967.1, 16~20쪽.

사정권에 의해 언론계가 순치되어 비판적·대항적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목도하고는, “큰 신문 큰 잡지로 여론을 지배해 가던 시기는 지나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전쟁에서 “무수한 게릴라부대로 재편성”하는 것과 같이 “사상의 싸움에서도” “게릴라전”을 전개하자고 주장했다. 『실천문학』 제1권 특집의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던, 송건호는<sup>122)</sup> 함석헌의 그러한 투쟁 전술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게릴라전’이 현실화되었던 시기를 1970년대 후반으로 꼽는다.<sup>123)</sup> 즉 사실, 『항일민족시집』, 『사상계』의 상호관련성을 유추할 때, ‘지성의 유격적’ 혹은 ‘게릴라적인 미디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점들을 잇는 ‘『실천문학』 - 『항일민족시집』 - 『사상계』’라는 시계열적인 선을 상상해볼 수 있다.

게릴라적인 미디어 전략은 달리 말해 지배체제의 포섭된 매스미디어와 다른 대안적인 미디어의 기동, 나아가 유신체제에 맞서는 담론과 정동을 생성하는 대항미디어(Counter-Media)의 창출과 확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경우, 이는 무크 『실천문학』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창립부터 선언이라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적·기습적인 미디어 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선언문이라는 비제도적인 활자미디어를 낭독·배포함으로써 지배의 범망을 넘나들었다. 이후 지속적인 선언을 통해 자신은 내부적으로는 조직 구성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정체성을 명료하게 만들어갔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선언을 통해 교수·언론인·학생 등의 지식인집단과 접촉하여 연대하고 노동자·민중 등과도 연계 지점을 확장해 갔다. 자신은 긴급조치 9호의 풍압 속에서도 ‘민족문화이 밤’과 같은 공연미디어를 가동하여 대학·문단·언론계 등의 제도적 영역에서 배제·추방되어 고립되어 있었던 개인들을 정념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활력을 한데 모아내는 한편,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발화의 공간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연대의 형식을 고민하기도 했다.

122) 송건호, 『문학과 인간과 사회』, 『실천문학』 제1권, 전예원, 1980.3, 241~249쪽.

123) 송건호, 『송건호 전집』 민주언론 민족언론2, 한길사, 2002, 190~191쪽 참조. 이와 같은 송건호의 논지를 이어받아 함석헌의 ‘언론 게릴라 전략과 무크지 『실천문학』 창간을 연관 짓는 논의로는 이용성, 『한국 지식인잡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논문, 1996, 118~119쪽 참조.

이와 더불어 『광장의 서서』와 같은 출판/인쇄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실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성과 대중성을 지속적으로 유통하는 방안을 가늠해보기도 했다. 따라서 무크지 『실천문학』은 결과적으로 보면, 자실이 창립 이후 구현해온 다양한 대항미디어적 실험을 융합화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주체성의 측면에서는 제도영역 외부로 배제·추방당한 자들이 새로운 제도와 활동 영역을 구축하여 반격의 거점을 생성시킨 것이기도 했다.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연대를 넘어 지속가능한 광장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닌 것이기도 했다.

이처럼 저항성과 연대성에 기반을 둔 자실의 대항미디어 운동은 자실 고유의 활동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70년대 유신체제를 관통하면서 한국사회 전역에 걸쳐 발생했던 ‘지배와 저항의 분극화’ 그리고 저항세력의 구체적인 연대의 기예, 나아가 그에 기반을 둔 공통의 주체성 창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양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실천문학』, 『조선일보』, 『한국일보』

고은 외, 『광장에 서서』, 새벽, 1978.

박태순, 『자유실천문인협회의 문예운동사 연재1~8』, 『내일을 여는 작가』 5~10, 작가회의출판부, 1997.1~1998.여름.

\_\_\_\_\_, 『민족문학작가회의 문예운동 30년사』 Ⅲ, 작가회의출판부, 2003.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 편찬위원회, 『증언: 1970년대 문학운동』, 한국작가회의, 2014.

한국작가회의 40주년 기념사업단 편찬위원회, 『한국작가회의 40년사: 1974~2014』, 실천문학사, 201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 2. 저서

고 은, 『새벽길』, 창작과비평사, 1978.

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V) 언론·노동편, 국가정보원, 2007.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 돌베개, 2019.

김병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문학』, 창작과비평사, 1994.

김정남, 『진실, 광장에 서다』, 창비, 2005.

김정인, 『대학과 권력 -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8.

김 철, 『구체성의 시학』, 실천문학사, 1993.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노동조합운동사』, 돌베개, 1985.

리영희·임현영, 『대화 - 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 한길사, 2005.

민족학교 편, 『항일민족시집』, 사상사, 1971.

박용규·이상길, 『한국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한국언론재단, 2007.

백기완, 『항일민족론』, 사상사, 1971.

백낙청·염무웅, 『한국문학의 현단계』 Ⅲ, 창작과비평사, 1984.

송건호, 『송건호 전집』 민주언론 민족언론2, 한길사, 2002.

염무웅, 『혼돈의 시대에 구상하는 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95.

윤활식·장윤환, 『동아일보와 박정희와 나』, 『1975 유신 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 인카운터, 2013.

이경숙, 『유신과 대학』, 역락, 2018.

이시영, 『바다호수』, 문학동네, 2004.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창작과비평사, 197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브리엔 파스, 양효실 · 이라영 · 이진실 · 한우리 · 황미요조 옮김, 『우리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 - 페미니즘 매니페스토, 폭발적으로 저항하는 언어들』, 바다출판사, 2021

Antonio Negri, *Insurgencies: constituent power and the modern state*, Trans. Maurizia Boscagl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3. 논문

고명철, 『진보적 문학운동의 역경과 갱신 - '민족문학작가회의'의 문학운동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12.

고봉준, 『80년대 문학의 전사(前史), 포스트 - 유신체제 문학의 의미 - 1972.12.12.부터 1983년까지의 비평 담론』, 『한민족문화연구』 50, 한민족문화학회, 2015.6.

권보드래, 『내 안의 일본 - 해방세대 작가의 식민지 기억과 '친일' 문제』, 『상허학보』 60, 상허학회, 2020.10.

김대성, 『제도의 해체와 확산, 그리고 문학의 정치 - 1980년대 무크지 운동 재고』, 『동서인문학』 45, 인문과학연구소, 2011.12.

김문주, 『1980년대 무크지 운동과 문학장의 변화』, 『한국시학연구』 37, 한국시학회, 2013.8.

김병익, 『80년대 문학의 천착 - 그 해명을 위한 질문』, 『문예중앙』, 중앙M&B, 1984.여름.

김성수, 『문학운동과 논픽션문학 - 1980년대 전반기 시기, 르브를 중심으로』,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4.

김효은, 『고은 시의 애도(哀悼) 양상 연구: 상실의 변인과 주체 양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성민엽, 『'문학무크지' 풍향은 어디?』, 『정경문화』, 경향신문사, 1984.2.

이민규, 『신군부와 언론 검열1: 비상계엄 456일, 사라진 기사만 1만여 건』, 『신문과방송』 592,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4.

이봉범, 『유신체제와 검열, 검열체제의 재편성의 동력과 민간자율기구의 존재방식』,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2.

이승철, 『1978년 4월 24일의 <민족문학의 밤>』, 『푸른사상』 31, 푸른사상사, 2020.봄.

이용성, 『한국 지식인집지의 이념에 대한 연구 -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논문, 1996

이정숙, 『'프레스 정동'의 탄생과 문학자의 '선언' - 『동아일보』 '백지광고'에 나타난 시민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4.

임경순, 『70년대 문학검열의 작동방식과 문학의 두 얼굴』, 『한국문학연구』 4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5.12.

임현영, 『1980년대 무크지를 통한 문학운동』, 『작가연구』 15, 깊은샘, 2003.4.

정대비, 『소집단 운동의 양상과 의미 - 70년대와 지금』, 『우리세대의 문학』 2 -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 문학과지성사, 1983.1.

조상호, 『한국출판의 언론적 기능과 시대적 역할에 관한 연구 - 권위주의체제하(1972~1987)의 사회과학 출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7.

조성우, 『민주청년협회의회와 이른바 '명동 YWCA 위장결혼식 사건』, 『기억과 전망』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12

채광석, 『1983년 한국 창작 문화의 토양/문학-중간 결산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미당』, 미당사, 1983.12.

\_\_\_\_\_, 『70년대 문화 운동의 반성-찢김의 문화에서 만남의 문화로』, 『미당』, 미당사, 1983.11.

함석헌, 『언론의 게릴라전을 제창한다』, 『사상계』, 사상계사, 1967.1.

황지우, 『무크 시대의 뒤안길 르포-흩어져 모이는 '작은 문학 운동', 그 인맥과 사상』, 『미당』, 미당사, 1983.5.

## (A) Study on Counter-Media Movement of the Council of Writers for Freedom and Practice(1)

– Centered on the process from founding by the manifesto  
to the first issue of *Practice Literature* –

YI JONG HO\*

The Council of Writers for Freedom and Practice(referred to as Jasil hereinafter), from its founding by the issue of the manifesto on the Gwanghwamun street on Nov., 18, 1974 to the reestablishment in 1984, has strengthened its internal solidarity and banded together with other intellectuals through multi-layered media activities, sharing its orientation with the public readers. Hence, this paper examined media activities by Jasil and pondered upon their significance, dividing them into a series of the manifestos, articulation of performance and printing media, and the foundation of *Practice Literature*.

In those days, Jasil aligned its organization and established the internal identity with the increased members by constantly issuing the manifestos for freedom of speech and anti-Yushin. Therefore, Jasil not only accessed the intellectual groups such as professors · journalists · students and formed the strong solidarity with them but prepared the link with the people. laborers. In addition, Jasil pursued extending its political planning and literary practice to the public through the performance media of ‘The Night of National Literature’

---

\*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and printing media of *Standing in the Square*. In such a process, while reorganizing the literary theories converged to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rallying main writers, Jasil laid the foundations going toward the theory of practice literature. Furthermore, the capabilities accumulated by these multi-layered media activities led to the first issue of the mook *Practice Literature*.

These media activities by Jasil has the characteristic and status both as the ‘Resistant Front’ which was constructed by various intellectuals such as writers · professors · university students · journalists who lost their basis for existence under the Yushin regime with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ough it was mainly led by writers, and as the ‘Counter-Media Movement’ which pursued the creation of the new subjectivity.

**Key words:** The Council of Writers for Freedom and Practice(Jasil), Counter-Media, Intellectual Solidarity, *Practice Literature*, Manifesto, The Night of National Literature, *Standing in the Square*, Yushin Regime